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연중 제23주일

제2162호

2023년 9월 10일(가해)



오늘의 미사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오 18,18)”

▶ 입당송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릅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3,7-9

▶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제2독서: 로마서 13,8-1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 복음: 마태 18,15-20

▶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목회장: 이명노(비오)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사목 일정

1) 9월 봉성체 안내

9월 봉성체는 9월 21일(목)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9월 10일(일)	오후 4시
9월 24일(일)	오후 4시
10월 1일(일)	오후 4시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3) 사무실 공지 사항

50주년 준비를 위한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안형준 토마스, 박영미 루치아

4) 2024년 달력 광고 접수 중입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무실 휴무 안내

9월 15일(금)까지 사무실을 휴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팔라마 티켓 판매 안내

\$50, \$100 티켓을 판매 중이니 많은 이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재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요즘 성당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사목위원회

1) 영상 교육 상영 안내(교육분과)

9월 10일(일)	“성경 통독: 민수기 1부”
9월 17일(일)	“성경 통독: 민수기 2부”

- 시간은 9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안내

일시: 9월 23일(토) - 9월 24일(일)

※ 모든 미사 30분 전에 연도를 할 예정입니다 (새벽 미사는 미사 후)

3)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예물 접수 안내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예물 접수는 사무실 및 미사 참석 방명록 코너에서 받습니다. 사무실에서는 9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접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 구절, 기도문 제출 시상식이 9월 17일 본당의 날 행사에 있습니다.

기도문 제출자
김용경 켈마, 최교식 보니파시오, 최라이언, 최종금 이냐시오

성경 구절 제출자
이효영 헬레나, 옥학주 로사, 오수자 막달레나, 최교식 보니파시오, 성정숙 벨라뎃다

엠블럼 제작자: 최혜진 안젤라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 ◦ 보험처리/친절상담 훗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광고문의 사무실 : 808-422-1010

1) 상임위원회 모임

일시: 9월 10일(일) 12:00

장소: 성당

2) 다락방 모임

일시: 9월 10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장소: 성당

3) 5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일시: 9월 24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4) 연령회 모임

본당의 날 행사로 9월 셋째주 월레모임은
갖지 않겠습니다.

 **재정위원회**

-2차 헌금 안내

9월 9/10일 마우이 화재 (Maui Wildfires)
2차 헌금이 있사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8월26/27일):\$8,882**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기타헌금
\$2,910	\$3,780	\$1,363	\$829

영적 독서와 기도

그리스도인 영적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독서와 묵상, 기도에 대해 알아본다.

영적 독서- 다른 독서와 구분하여 영적 독서(렉시오 디비나)라고 한다. 교부들의 조언은 매일 열성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을 권한다. 에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인은 리브가처럼 매일 샘으로 나와야 하고, 영적독서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 읽힌 내용은 실천해야 한다' 고까지 하면서 영적 독서의 필수불가결성을 강조하였다.

묵상-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꾸준히 반복하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 꾸려나가기 위한 것이다. 묵상은 의미 체험이고, 수련이자 방법이며 마침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 실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과의 만남 등이 묵상의 본질적인 것에 속한다.

기도- 신학적으로 기도는 인간이 피조된 존재라는 것, 불린 존재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기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야 한다. 기도의 기본형태는 부르시는 하나님과 부름을 받은 인간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된다. 부르심을 받은 것의 소중함이 기도에서 드러날 때 감사와 찬미와 흥송이 생겨난다. 또한 자신의 무능력과 죄스러움을 느끼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존재로서 그 목적지를 향한 여정 중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곳에서 청원 기도의 의미는 한층 더 깊어진다. 시편에서 기도도 기쁨에 의한 찬미와 감사, 고통의 체험에 대한 울부짖음과 청원, 이 두 가지 형태가 개인의 기도를 형성한다. (영성 신학 입문 참조)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용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성인 조신철 가롤로

성인명	조신철 가롤로 (趙信喆 Charles)
축 일	9월 20일
활동 연도	1796-1839년

성 조신철 카롤루스(Carolus, 또는 가롤로)는 강원도 회양에 살던 외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 때에 모친을 잃고, 얼마 안 되는 재산마저 부친이 탕진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떠나 절에 들어가 몇 해를 지냈다. 그 후 절에서 내려와 이집 저집 다니며 머슴살이를 하다가, 나이 23세 때에 북경을 왕래하는 사신의 하인으로 들어갔다. 정직하고 용감했던 그는 사신의 종복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고, 여러 번 북경을 왕래하는 동안 모은 돈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이 때 사신을 따라다니던 유진길과 정하상이 그의 착실함을 보고 장차 조선 교회의 큰 일꾼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를 입교시켰다. 얼마 후 그는 유진길과 함께 북경으로 가서 신부들을 만나보고 성세와 견진과 성체성사를 받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조선에 돌아온 그는 기쁨 중에 겸손과 인내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생활하였고, 애공시사로 새 신자들을 도왔으며, 아내를 권유하여 입교시켰으나 불행히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조 카롤루스는 열심한 신자와 재혼하여 살았는데 그 부인이 곧 최영이 바르바라(Barbara)이다.

비록 그는 비천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조선 천주교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의 도움으로 성직자들이 입국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조선말을 잘 모르던 모방(Manbant, 羅) 신부의 통역관이 되어 지방 전교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839년 봄 북경에서 귀국하던 어느 날 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금년에는 순교하는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하시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다고 한다.

서울에 돌아와 보니 과연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 해 7월 어느 날 조 카롤루스가 외출한 사이에 포교들이 가족들을 잡아가고 말았다. 마침 집으로 돌아온 카롤루스는 곧 그들의 뒤를 따라 포도청으로 달려가서 스스로 잡혀온 사람들의 가장이라고 말하여 고문을 받게 되었다. 포장이 그의 집에서 압수한 종교서적과 묵주, 성패의 유래를 물으니 카롤루스는 자신이 북경에서 구하여 온 것이라고 대답하였을 뿐 그 밖의 물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에 형리들은 그의 팔과 다리를 묶어서 대들보에 매달고 닥치는 대로 매질을 하였으나 역시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하였다.

앵베르(Imbert, 范世亨) 주교, 모방 신부와 샤프탕(Chastan, 鄭) 신부가 잡히자, 조 카롤루스는 이들과 함께 의금부로 보내져서 3일간의 고문과 매질을 받고 드디어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는 형장으로 신고 갈 수레를 타기 전에 옥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국으로 먼저 가서 기다릴 터이니 모두 용기를 내서 따라오도록 하라.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여 주시오” 하며 희색이 만면하여 출발하였고, 가는 도중에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서소문 밖에 이르러 수레 위의 십자가로부터 풀려 내려질 때, 그는 많은 구경꾼들 속에 끼어 있던 외인 친척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미소로 인사를 한 후 1839년 9월 26일 44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고 치명하였다. 그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봉헌
 8월 27일까지 묵주기도 봉헌은
총 213,257단입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선 / 599-9810, 592-5011	SAS Ala Moana 사스 공인 딜러 김 퀴리노 / 955-9500	해피약국 처방약, 한국약, 무료배달 김 퀴리노 / 955-9500
광고안내 사무실 전화 : 808-422-1010	Young Law Group LLC. 한국, 미국 변호사 그룹 상법, 계약법, 상속, 이민 808-591-0722 / 이재영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